

관광업계, 휴가철 'BA.5 변이' 긴장

유럽발 확진자 증가... 7차 대규모 감염 우려 상황

국내에서도 행사 취소 등 업계 "그나마 활력 들고 있는데" 비상

휴가철 성수기를 기대하던 관광업계가 BA.5 변이 에 비껴 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던 일부 행사가 취소되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 8일 외신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BA.5가 유행하며 V자형 곡선이 나타났고, 국내에서도 1주일새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났다. BA.5는 전파력이 강하면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있어 돌과감염과 재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BA.2에 비해 전파력이 35%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에서는 BA.5가 크게 확산되면서 5일과 6일 연속으로 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었다. 스페인 역시 BA.5 확산으로 7차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방역당국은 BA.5가 조만간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0~31일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신촌충추제가 행사를 3주 앞두고 취소됐다. 티켓이 이미 7000장 팔린 상황이었던 만큼 주최측의 충격이 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서대문구 등의 우려로 취소가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마스크가 물에 젖으면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떨어지고, 마스크가 벗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물과 연관된 축제를 준비 중인 타 지자체들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해수욕장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 높은 방역수준을 유지한다. 경북도는 해수욕장 곳곳에 현수막과 안내문을 내걸고 실외 이용객들에게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권장키로 했다.

코로나 이전 국내 인바운드 여행객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중국이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시설 격리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왔다. 하지만 산시성 성도 시안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2가 처음 발생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안은 6일 0시부터 1주일간 봉쇄됐다. 국내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2년여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서서히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지난 1~5월 방한한 외국인인 2019년 동기 대비 94.5% 감소한 96만 7003명, 한국인 출국자는 95.7% 감소한 122만 2541명을 각각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엔데믹으로 관광업계에 서서히 활력이 들고 있었는데 BA.5 변이로 회복 속도가 늦춰질까 걱정"이라며 "항공료 급등과 물가상승, 인력 부족에 더해 재유행까지 우려돼 업계의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뉴시스

"24초 영화 공모 참여하세요"

'군산개복 단편영화제' 9월 24일 개최... 8월 1~31일 공모

군산시는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24초 영화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4일 15~18시 실시되는 제3회 군산개복 단편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영화제는 군산시민예술촌 공연장과 야외 뒤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제3회 군산개복단편영화제는 '당신의 하루가 한편의 영화가 됩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주제가 가능하며, 사진 및 영상 촬영기들로 제작·편집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군산시가 후원하며 올해 3회차 개최되는 공모전은 24초의 길이의 영상물을 제작해 군산시민예술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영상과 함께 이메일(gstzone@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본선 진출 50편 시상과 초청작 모두 상영된다. 레드카펫, 포토존, 프리마켓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화제 당일 야외 뒤편에 LED전광판을 설치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더라도 시상식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문화도시 익산'

'문화도시 삼삼오오' 참가팀 모집... 문화도시 익산 위한 시민 자유로운 토론·제안 수렴

익산시는 문화도시 익산을 함께 만들어 갈 시민을 찾는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시민단체인 희망연대와 함께 문화도시 시민 이야기 주간에 함께할 '문화도시 삼삼오오' 참가팀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문화도시 삼삼오오'는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시민들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해 모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은 익산시민 또는 익산시 소재 학교나 직장 소속된 학생이나 직장인으로 3인 이상 5인 이하로 팀을 구성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4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내달 8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시민 이야기 주간' 동안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임 운영비 15만 원과 이야기 도구, 토론 촉진자 파견을 지원한다. 한편 시민 이야기 주간 모임을 통해 도출된 실행계획은 심사를 거쳐 최종 20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행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도시 삼삼오오' 신청은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을 주는 프로젝트 △지역의 문화 자원 활용 프로젝트 △익산의 숨은 보석을 찾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 중에서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심사기준은 사업 적합성, 공익성, 시민 참여



익산시는 문화도시 익산을 함께 만들어 갈 시민을 찾는다.(시민 이야기 주간 활동사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삼삼오오"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익산문화도시의 대표 사업이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만들어 가는 역사문화도시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자세한 사항은 익산 희망연대 홈페이지(www.iksanho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상세 문의는 익산 희망연대(063-841-7942)로 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김제시, 이동형 거리미술관 하반기 전시 작가 공모

김제시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거리미술관' 참여 작가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시각예술가 가운데 김제에 거주하거나 작업실을 둔 개인 또는 단체 가운데 총 3명(팀)을 선발하여 30일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지원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참여작가는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신청기간은 7월 11일부터 22일까지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김제형 공공예술 프로젝트인 이동형 '거리미술관' 사업은 김제시민 누구나 차별과 소외 없이 문화예술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특히 이동형 '거리미술관'은 김제시의 다양한 축제(9월 3일~5일 2022 김제문화제 야행, 9월 29일~10월 3일 제24회 김제지평선축제)와 연계하여 설치될 예정으로 시민들과 김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의 참신성, 독창성, 차별성과 예술인의 역량 등을 심사해 선정 여부를 8월에 개별 통지하며, 응모 및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문화홍보복지실(063-540-3817)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예술위, 아프간 특별기여자에 문화누리카드 영문 리플렛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영문 리플렛을 제작 전달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영문 리플렛에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정보가 담겼다. 문화누리카드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다. 올해는 발급 자격을 충족하는 인원

100%로 발급 대상자를 확대, 263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위는 지난달 18일 울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복지제도 설명회에서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27세대, 128명에게 영문 리플렛을 전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탈레반세력에 장악당한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던 이들과 그 가족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